

SARAH  
CHANG

&

VIRTUOSI

CREDIA MUSIC & ARTISTS



Happy Hermès Holidays!

## 사라 장 & 비르투오지

Sarah Chang & Virtuosi

---

CREEDIA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7:30PM Tuesday, December 27, 2022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SUBLIMAGE  
L'EXTRAIT

CHANEL

# SUBLIMAGE L'EXTRAIT

단 한 방울 안에 담긴 수블리마지의 놀라운 힘

수블리마지는 피부의 활력을 깨우는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연구소가 엄선한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로, 뛰어난 스킨케어 효능이 돋보이는 히말라야산 스웨티아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로 세럼처럼 강력한 리페어 효과와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탁월한 성분의 힘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사용 직후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활력이 되살아나 더욱 탄력 있어 보입니다. 사용할수록 매끈하고 부드러워진 피부는 송고하게 빛나며 탄탄해집니다.

# CHANEL



“저는 언제나 한국의 음악가들과 실내악 같은  
친밀한 분위기로 함께 하는 걸 바라왔습니다.  
우리는 현악기만으로도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표현해낼 수 있는  
섬세한 균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 사라 장 Sarah Chang

비탈리 1663-1745  
Italy

T. A. Vitali

샤콘느 사단조

Chaconne in g minor

바흐 1685-1750  
Germany

J. S. Bach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BWV1043

Concerto for Two Violins in d minor, BWV1043

I. Vivace 빠르고 생기있게 | 사라 장 (Violin 1), 장유진 (Violin 2)

II. Largo ma non tanto 느리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 사라 장 (Violin 1), 심동영 (Violin 2)

III. Allegro 빠르게 | 사라 장 (Violin 1), 김예원 (Violin 2)

I N T E R M I S S I O N

비발디 1678-1741  
Italy

A. Vivaldi

바이올린 협주곡 마장조, Op.8-1 RV.269 <사계> 중 “봄”

<The Four Seasons>, Concerto No. 1 in E Major, RV.269 “Spring”

I. Allegro 빠르게

II. Largo 아주 느리게

III. Allegro Pastorale 빠르고 목가적으로

바이올린 협주곡 사단조, Op.8-2, RV.315 <사계> 중 “여름”

<The Four Seasons>, Concerto No. 2 in g minor, RV.315 “Summer”

I. Allegro non molt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Adagio e Piano - Presto e Forte 느리고 천천히 - 빠르고 강하게

III. Presto 빠르게

바이올린 협주곡 바장조, Op.8-3, RV.293 <사계> 중 “가을”

<The Four Seasons>, Concerto No. 3 in F Major, RV.293 “Autumn”

I. Allegro 빠르게

II. Adagio Molto 더욱 느리고 표정이 풍부하게

III. Allegro 빠르게

바이올린 협주곡 바단조, Op.8-4, RV.297 <사계> 중 “겨울”

<The Four Seasons>, Concerto No. 4 in f minor, RV.297 “Winter”

I. Allegro non molt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II. Largo 아주 느리게

III. Allegro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  
샤콘느 사단조

Tomaso Antonio Vitali  
Chaconne in g minor

바로크 시대의 볼로냐에는 두 명의 ‘비탈리’가 있었다. 우선 볼로냐 음악계에 중요한 작품들을 여럿 남기며 지역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바니 바티스타가 있었고, 그의 아들인 토마소 안토니오도 에스테 궁정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당시 아들은 아버지의 거대한 빛에 가려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아버지는 거의 잊혔지만 아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전은 전적으로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야샤 하이페츠 덕분이다. 하이페츠가 오르간 반주와 함께 발매한 아들 비탈리의 <샤콘느 사단조>는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연주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샤콘느’란 본래 스페인에서 유래한 3박자 춤곡으로, 바로크 시대에는 반복되는 화음 진행이나 저음 선율을 기초로 진행되는 일종의 변주곡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비탈리의 <샤콘느>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하행하는 저음 선율을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반복하며, 이 위에 고음 선율의 변주가 진행된다. 바로크 시대의 작품인 만큼 본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해 작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등 다양한 반주로 편곡되어 즐겨 연주되고 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BWV1043

Johann Sebastian Bach  
Concerto for Two Violins  
in d minor, BWV1043

바흐는 수많은 성가뿐만 아니라 실내악 혹은 관현악 규모의 기악 작품도 다수 작곡했다. 특히 1708년부터 1723년까지 봉직했던 바이마르와 쾨텐의 궁정에서는 성가를 작곡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행했던 코렐리와 비발디의 소나타와 협주곡과 같은 이탈리아 양식에 기반한 기악 작품을 자유롭게 작곡하고 연주했다. 예를 들면, 교회소나타와 실내소나타 양식으로 양분되어 있는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1720)와 합주협주곡 양식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1721)은 코렐리의 영향을 보여주며, 세 악장의 구성을 가진 협주곡들은 비발디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라이프치히로 이주하여 성토마스 교회의 음악감독(Kantor)으로 부임한 이후, 바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수많은 칸타타를 작곡하고 학생을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그는 비종교적인 작품이나 기악곡 작곡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겨울마다 ‘카페 침머만’에서 매주 두 시간 길이의 음악회 ‘콜레기움 무지쿰’을 열고, 세속적인 노래와 기악곡을 발표하며 쾨텐에서의 열정을 이어갔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c.1730)은 바로 이러한 열정의 결과물이었다. 고전시대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독주악기가 사용되는 협주곡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코렐리와 비발디를 비롯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에게는 매우 익숙했으며, 역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인 바흐도 여러 작품을 남겼다. ‘합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이 장르는 일반적으로 독주악기군의 소양상블 '콘체르티노'(concertino)와 전체 오케스트라의 대양상블 '리피에노'(ripieno)의 구도를 갖추어 진행되었으며,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도 독주 바이올린들과 오케스트라의 협동과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독주 바이올린이 통주저음(지속적으로 연주되는 저음 파트로서, 건반악기와 자유롭게 선택된 저음 악기들로 연주) 위에서 동등한 지위와 각자의 완벽한 선율을 갖고 얽히고설키는 연주를 들려주는 특징은 트리오 소나타(두 개의 멜로디와 통주저음으로 편성된 바로크 시대의 소나타)와 닮아있기도 하다.

1악장은 강한 에너지와 과감한 도약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3악장은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반하여 2악장은 두 독주 바이올린이 비길 데 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감성을 자극한다. 앞선 성부의 선율을 모방하며 뒤따라가는 대위법이 곡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토니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8 중

1-4번 <사계>

Antonio Vivaldi

Violin Concertos Op.8

No. 1-4 <The Four Seasons>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곡을 고른다면 단연 비발디의 '사계'가 뽑히지 않을까? 300년도 더 이전인 1718~20년에 작곡된 이 곡의 여전한 생명력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계'는 작곡 당시에도 인기를 얻었고, 1725년에 열두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화성과 창의의 시도, Op. 8'의 가장 앞에 계절 순서대로 배치되어 출판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들은 비발디가 전파한 협주곡의 특징, 즉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세 악장 구성과, 독주와 관현악이 대화하는 '리토르넬로' 형식을 준용하고 있지만, 특히 악보에 소네트를 적어 표제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음악은 글이 말하는 다양한 상황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감상하는 것도 흥미를 더할 것이다.

우선 첫 곡은 <봄, RV269>로 시작한다. 1악장에서는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천둥과 번개, 폭풍우 소리를 묘사하고, 2악장에서는 잠이 드는 듯 나른하다. 3악장은 춤곡과 같이 리드미컬하고 활기가 넘치며, 지속되는 저음 위에 멜로디를 연주하는 백파이프 소리를 흉내 낸다.

제1악장: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한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 시냇물은 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번개와 폭풍이 천둥을 울리며 봄을 알린다. 잠잠해지자 작은 새들은 다시 매혹적인 노래를 부른다.

제2악장: 여기 꽃들이 만발한 즐거운 목장에서는 나뭇잎들과 식물들이 달콤하게 속삭이고 양치기는 총실한 개를 곁에 두고 잠들어 있다.

제3악장: 요정들과 양치기들은 시골의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축제 소리에 이끌려 화사한 봄을 즐기며 사랑스럽게 춤을 춘다.

<여름, RV315>는 여름날의 따가운 햇볕과 천둥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감상자에게 강렬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제1악장: 불타는 태양의 비정한 계절에 사람과 동물들도 지치고 소나무도 타오른다. 뾰꾸기가 소리를 높이고, 산비둘기와 방울새도 함께 노래한다.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북풍이 휘몰아친다. 목동은 무서운 폭풍과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제2악장: 목동은 지친 팔다리로 쉬지 못하고, 번개와 거친 천둥, 성난 파리 떼와 말벌 떼로 두려워한다.

제3악장: 아! 불행하게도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 하늘은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비추고, 우박까지 내리게 하여, 옥수수의 열매와 뾰은 줄기를 꺾는다.

<가을, RV293>의 주제는 가을에 누리는 기쁨, 즉 추수와 축제, 그리고 사냥이다. 그런데 2악장은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거의 구분되지 않고 당시 보기 드문 모호하면서 몽환적인 음향을 들려준다. 비발디의 남다른 음악적 상상력이 엿보이는 악장이다.

제1악장: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은혜로운 수확의 기쁨을 축하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쿠스의 술에 취해 결국 잠에 빠져든다.

제2악장: 모두 밖으로 나가 춤을 추고 노래하자. 기쁨으로 누그러진 분위기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계절이다. 더 큰 즐거움을 위해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다.

제3악장: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사냥꾼들은 뿔피리와 총을 들고 사냥개와 함께 숲속에 들어간다. 짐승들이 놀라 도망가고, 그들이 뒤를 쫓는다. 짐승들은 총과 개의 큰 소리에 당황하고 지치고, 끝내 부상을 당해 헐떡이며 쓰러진다.

<겨울, RV297>은 추위와 눈, 얼음 등의 차갑고 날카로운 이미지와 이에 상반되는 화롯가의 따뜻한 이미지가 대비된다. “그래도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마지막 문구처럼, 어려운 세상 안에 평화가 공존하고, 삶이 험겹더라도 여전히 소중한 것이다.

제1악장: 두려운 바람의 매서운 숨결에 찬 눈 속에서 얼어붙을 듯이 떠다. 매 순간 발을 구르며 달려가고, 지나친 추위로 이를 부딪친다.

제2악장: 화롯가에서 편안히 쉬고, 밖은 쏟아지는 비에 젖는다.

제3악장: 얼음길을 넘어질까 천천히 조심스레 걷는다. 그러다 갑자기 돌고 미끄러지고 땅에 부딪힌다. 얼음이 깨지기 전에 서둘러 달려간다. 문을 꼭 잠가두었지만, 집에서도 으스스한 북풍이 느껴진다. 그래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겨울이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최고의 이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  
”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불과 얼음》

사라샹테: 〈카르멘 환타지〉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베토벤: 〈로망스〉, 바흐: 〈G선상의 아리아〉  
사라샹테: 〈치고이네르바이젠〉

사라 장 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라시도 도밍고 지휘



비발디: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곡)

사라 장 바이올린, 지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프랑크, 라벨, 생상:  
바이올린 소나타

사라 장 바이올린  
라르스 포르트 피아노



##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

### Sarah Chang Violinist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라 장은 8살에 뉴욕 필하모닉과 데뷔 무대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이후 30년 넘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그리고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해오고 있다.

미국 활동으로는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및 클리블랜드 심포니와의 협연을 비롯해 할리우드 볼 및 탕글우드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도 연주한 바 있다. 사라 장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및 주요 런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도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핀커스 주커만, 아이작 스티븐,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예뵘 브르프만, 요요 마, 볼프강 자발리슈,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 등 세계 거장들과의 체임버 연주 협연 등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사라 장은 2009년 그녀의 20번째 EMI 음반으로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와 드레스덴 필하모닉 협연으로 브람스 및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발매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그녀의 비발디 사계 음반은 발매 후 국제적인 찬사를 이끌어냈는데, BBC 뮤직 매거진이 “그녀의 음반 중 이보다 더 훌륭한 음반은 없었다”라고 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이먼 래틀 경의 지휘로 베를린 필과의 협연곡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 앨범과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한 베를린 필과의 바이올린 소품집 <불과 얼음>, 그리고 콜린 데이비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드보르자크 협주곡 음반 외에도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라르스 포그트를 포함하여 여러 연주자들과 실내악 및 소나타 음반들을 발매하였다.

사라 장은 2006년 뉴스위크 매거진에서 ‘리더십이 강한 20인의 여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회적 성취와 활동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WEF) 선정의 영 글로벌 리더로 뽑혔다.

2005년 예일대학교에서 스포라그 홀에 사라 장의 이름을 딴 객석을 마련했으며, 201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뛰어난 예술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2004년도에는 아테네 올림픽의 뉴욕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할리우드 볼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라 장의 화려한 수상 내역 중 몇 개를 들자면 에버리 피셔 상, 그라모폰의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 독일의 ‘에코 음반상’, 런던 인터내셔널 클래식 뮤직 어워즈의 ‘올해의 신인상’, 이탈리아 시에나의 ‘국제 키지아나 음악 아카데미상’, 대한민국 ‘난파상’ 등이 있으며 2011년부터는 미국 예술 대사로도 임명되었다.



장유진, 악장

**Yoojin Jang, Concertmaster**

2016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멤버

이스트만 음대 조교수



심동영

**Dongyoung Shim**

스탈버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및 바흐 특별상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주하이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외 다수 입상



오수안

**Sooanh Oh**

서울대학교,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 졸업

발트 앙상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이은새

**Eunsae Lee**

서울대, 줄리어드 음대, 예일 음대 MMA 졸업

세종솔로이스츠,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부수석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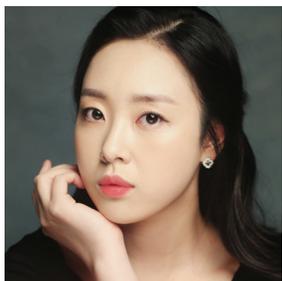


홍성란

**Seonglan Hong**

2022 샌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중



김예원 ◇  
Yewon Kim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단원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중앙대 강사



이지윤  
Jiyoon Lee

독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발트 앙상블 멤버



전 클라라 홍주  
Clara Hongju Jeon

트리오 디어 멤버, 중앙대학교 출강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 음악제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이윤서  
Yoonseo Lee

2021 HKGNA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이한나 ◊  
**Hanna Lee**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금호솔로이스츠  
양상블 오푸스, 올라 비올라 사운드 멤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연세대학교 출강



정승원  
**Seung Won Chung**

연세대학교, 민헌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양상블블랭크,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  
연세대학교 출강



이예찬  
**Yechan Lee**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성정음악콩쿠르 은상



심준호 ◊  
**Joon Ho Shim**

쥬네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만장일치 우승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역임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클럽 M 멤버



이경준  
**Kyung-Jun Lee**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노르웨이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클라이페다 국제 첼로 콩쿠르  
불가리아 영 비르투오소 국제 콩쿠르 우승

첼로 | CELLO



홍승아  
Seung Ah Hong

콜럼버스 인디애나 필하모닉 첼로 수석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부산대학교 출강

더블 베이스 | DOUBLE BASS



성민제 ◊  
Minje Sung

마티아스 스페르거 국제 콩쿠르 아시아 최연소 우승  
샤프트 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국제 콩쿠르 아시아 최연소 우승



박세웅  
Seawoong Park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금호영재콘서트 및 LCK 스프링결승 오프닝 세레머니 참여

하프시코드 | HARPISCHORD



박준호  
Joonho Park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에서 연주 활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겸임교원

◊ 수석 Principal

## 사라 장 인터뷰

### Interview with Sarah Chang

2년 전 리사이틀에 이어 이번에는 후배 연주자들과 바로크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투어는 단순히 또 다른 협주곡이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했어요.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 있는 곡들은 모두 제게는 좋은 기억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크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모두가 재부팅 버튼을 누른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아름답고, 독특하며,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동창회처럼 친숙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삶에 아름다움과 예술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비탈리의 샤콘느 g단조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라장의 연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오래 연주해 온 곡이다 보니 본인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탈리의 샤콘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열정과 아름다움, 그리고 드라마로 가득 차 있는 곡이죠. 이번에 저희가 연주할 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편곡을 의뢰한 것으로, 솔로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 곡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적도 있고, 하이페츠가 녹음했던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위한 굉장히 아름다운 편곡 버전도 있지만,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은 지금껏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동료 작곡가에게 저를 위해 새롭게 작업 해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국 후배 연주자들과 협주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관객들에게는 한 무대에서 사라 장과 더불어 뛰어난 연주자들을 함께 볼 수 있으니 더욱더 선물 같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뛰어난 재능을 지닌 분들이 한국에 정말 많다는 것에 늘 감명을 받고,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공연에 대해 느끼는 바나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것들을 넓은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연주를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단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제가 서는 모든 무대가 의미가 있고, 관객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한국의 음악가들과 실내악 같은 친밀한 분위기로 함께하기를 바라 왔습니다. 우리는 현악기만으로도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표현해낼 수 있는 섬세한 균형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8살에 뉴욕필과 데뷔 무대를 가졌고, 10살에는 첫 앨범을 발매, 그리고 지난 30여년 간 엄청난 음악적 성취를 이뤄내셨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음악가로서의 삶은 정말 멋지죠. 하지만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집어삼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 Wiener Sängerknaben Vienna

천사들의 합창이 돌아왔다!

# Boys Chor

창단 525주년 기념

##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2023. 2. 4 SAT | 2. 5 SUN |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7 관악아트홀 | 1.28 함안문화예술회관 | 1.29 부산문화회관 | 2.1 속초문화예술회관 | 2.2 구미문화예술회관



## 로열 헤리티지 허브 레시피

**반 데르 피게**  
**VAN DER PIGGE**

SINCE 1849

오직 공연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확인하세요.



# CREDIA SEASON 2023

##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CREDIA CLASSIC CLUB

1월 - 12월, 롯데콘서트홀

##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OF  
VIENNA BOYS CHOIR

2.4 (토) - 2.5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INMO YANG & DASOL KIM DUO RECITAL

4.7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필립 헤레베헤 &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PHILIPPE HERREWEGHE &  
THE ORCHESTRE DES CHAMPS-ELYSEES

5.17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YUHKI KURAMOTO CONCERT

6.2 (금) 롯데콘서트홀

## 테너 존노 리사이틀 <로맨티스트>

TENOR JOHN NOH RECITAL  
<ROMANTICIST>

6월 중

##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BREATH : 숨>

HERA HYESANG PARK RECITAL  
<BREATH>

6월 중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7.4 (화) - 7.5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조수미 &**

**베를린 필하모닉 12첼리스트**

SUMI JO &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7.6 (목) 롯데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2 (토) - 9.3 (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정명훈 & 정경화 & 지안 왕 트리오**

MYUNG-WHUN CHUNG &  
KYUNG-WHA CHUNG & JIAN WANG

9.5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HAN-NA CHANG & MISCHA MAISKY

9.23 (토) - 9.24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YO-YO MA CELLO RECITAL

11.2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 무지치 콘서트**

I MUSICI CONCERT

12.9 (토) - 12.10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YUHKI KURAMOTO & FRIENDS

12.24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RICHARD YONGJAE O'NEILL  
<THE GIFT>

12.29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사라장 & 비르투오지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